

유통망 막힌 전남 김, 수출 비중 2% '충격'

생산점유율 66% 국내 최대 명성 무색...가공업체 규모화 절실

국내 김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넘어섰지만 전국 최대 산지인 전남의 수출 비중은 2%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매년 급성장하고 있는 수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공업체의 규모화와 적극적인 수출업체 유통망 확장이 절실히 요구된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생산된 김(물김 기준)은 23만

2000t으로 금액으로는 2247억원에 달한다. 이중 전남지역 김 생산량은 15만4000t에 1634억원으로 66%의 점유율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하지만 매년 10%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김 수출 분야에서는 전남이 김 최대 생산지라는 명성이 무색하리만큼 미미한 설정이다.

김 수출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넘어서 농수산물을 통틀어 국

내에서 생산되는 품목 중 인삼에 이어 2번째로 많은 수출고를 올렸다. 지난해 생산량 23만2000t 중 9056t을 수출해 1억519만달러를 올렸고 농림수산식품부는 2015년 김 수출액이 1억1600만 달러를 넘어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같은 김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전남지역 김 수출은 고작 1634t(1960만달러)에 불과해 전국 대비 1.9%에 그치고 있다.

최대 생산지이면서도 이처럼 수출이

미미한 원인은 김 수출이 가공식품인 조미김 위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지역은 과거부터 단순 물김 생산에만 주력해 원재료만 공급하고 가공·유통은 대부분 부산 등 타지역 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어 도내 업체들이 수출 판로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수출업체의 한 관계자는 “가장 큰 시장인 일본과 가까운 부산에서 유통망을 확장하고 있어 최대 생산량을 가지고도 유통망에 접근하기가 불가능하다”며 해외 바이어들과의 직접 접촉 지원 등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한때 점유율 90%에 달했던 전남산 물김은 1990년대 이후 도내 어장 노후화와 신규 어장 개발 붐을 타고 전북과 충남까지 어장이 확대되면서 갈수록 비중이 낮아져 도내 김 산업의 가공·수출업 진출이 더욱 절실했다는 지적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수산기업 규모화와 타지역 가공·유통업체 유치 등을 통해 수출을 확대하여 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며 “미국 등 신규 수출 시장이 뜨고 있는 만큼 이를 통해 새로운 수출판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1000원 생닭 구입 장사진

28일 오전 홈플러스 동광주점에 1000원짜리 생닭을 구입하기 위해 모여든 고객들이 줄지어 물건을 받아들고 있다. 오전 10시에 판매를 시작한 ‘착한치킨’은 10분만에 하루 공급량인 250마리가 모두 판매됐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홈플러스 ‘착한 모니터’는 거짓?

공정위, 광고속 스피커 포함 여부 실태파악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28일 ‘거짓광고’ 논란에 휩싸인 대형할인매장 홈플러스의 ‘착한 LED 모니터’ 판매에 대한 실태파악 및 법위반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

홈플러스는 24일부터 전국 매장에서 ‘착한 LED 모니터’이며 모니터를 19만9000원에 팔면서 광고에

는 ‘스피커 2개를 기본 장착했다’고 밝혔으나 정작 판매에는 ‘스피커가 없다’는 안내문을 내걸고 물건을 팔아 소비자들로부터 ‘허위광고 아니냐’는 거센 항의를 받았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홈플러스의 ‘착한 LED 모니터’ 판매가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

되는 지 검토할 것”이라면서 “우선 광고 및 판매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허위광고, 거짓광고 여부를 결정짓는 데는 물건을 구매할 최종 시점에 어떤 내용이 고지됐느냐가 중요하다”면서 “매장에서 ‘스피커가 없다’는 사실을 알리고 물건을 판매했을 경우엔 법위반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사실과 다른 광고를 한 뒤 별다른 고지 없이 인터넷이나 통신판매했을 경우엔 법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DTI 규제가 완화된 작년 9월 이후로는 거의 7개월간 8조5779억원 늘었다. 이는 2009년 9월부터 작년 3월까지 7개월간 증가액 2조4245억원의 3.5배 수준이다.

반면 개인신용대출은 24일 현재 62조1783억원으로 작년 8월말보다 4조7979억원 급감했다. 2009년 9월 이후 7개월간 2조1601억원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2.2배 수준이다. 2008년 말 71조3539억원에 비해서는 거의 2년3개월 새 9조1747억원 축소됐다.

작년 9월 이후 DTI 완화 기간에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늘어나자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에 치중하면서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을 외면한 것

으로 보인다.

증기대출도 작년 9월 이후 5271억 원 감소했다. 2009년 9월 이후 7개월간 2조3894억원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2009년 9월 이후 7개월 동안 1조9966억원 줄었던 대기업대출은 작년 9월 이후로는 5조652억원 늘었다.

◇은행 자금증기 기능 회복 시급=은행의 자금증기 기능이 약화되면서 중소기업과 서민층의 자금난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금 사정 등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보여주는 현 재생활현관 소비자동향지수(CSI)와 6개월 후의 생활현관CSI는 3월에 일제히 하락하면서 각각 23개월과 2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등에게 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부장은 “진정한 의미의 자금증기 기능이 작동하려면 금융회사들이 기술력 평가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며 “유망 기업을 찾아내 투자하는 기술펀드를 조성한 뒤 고객 자금을 끌어들여 투자하고 투자 이익을 고객에게 돌려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전남개발공사, 조달서비스 이용 ‘우수’

전남개발공사(사장 김주열)는 28일 조달청으로부터 ‘2010년 조달서비스 이용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조달청의 이번 선정은 지난 해 조달서비스 이용실적과 활용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됐다.

전남개발공사의 조달이용실적은 지난 2010년 846억원으로 전년대비 1043%나 크게 늘었고, 계약체결도 108건 가운데 107건을 조달청 전자계약으로 처리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부수 시행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전남개발공사는 ‘지역업체 우선 배려정책(지역제한, 지역가점, 지역의 무공동도급)’을 실시해 2010년



도 발주건수 108건 중 90건을 지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정숙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세관, 자동차산업 FTA 활용 설명회



관세청 광주·전라지역본부세관(세관장 진인근)은 광주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28일 광주상공회의소 7층 회의실에서 관내 자동차관련 제품 수출업체와 중소 협력업체 등 150여 명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산업 FTA 활용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서 관세청은 자동차산업 품목분류, FTA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빙서류 작성방법, 원산지관리시스템 활용 등업체가 FTA 원산지를 관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내용들을 제공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은행권, 中企·서민대출 외면

DTI 완화후 주택담보대출 치중...자금난 가중

시중은행들이 작년 9월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후 7개월간 주택담보대출에 치중한 반면 중소기업 대출과 무담보 개인신용대출에는 인색한 모습을 보였다.

돈이 필요한 중소기업과 서민층에 제때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은행의 자금증기 기능 회복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주택·대기업대출 증가...증기·신용대출 감소 = 28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은행 등 5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4일 현재 201조1926억원으로 전월말보다 1조2321억원 증가하면서 200조원을 돌파했다.

DTI 규제가 완화된 작년 9월 이후로는 거의 7개월간 8조5779억원 늘었다. 이는 2009년 9월부터 작년 3월까지 7개월간 증가액 2조4245억원의 3.5배 수준이다.

반면 개인신용대출은 24일 현재 62조1783억원으로 작년 8월말보다 4조7979억원 급감했다. 2009년 9월 이후 7개월간 2조3894억원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부장은 “진정한 의미의 자금증기 기능이 작동하려면 금융회사들이 기술력 평가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며 “유망 기업을 찾아내 투자하는 기술펀드를 조성한 뒤 고객 자금을 끌어들여 투자하고 투자 이익을 고객에게 돌려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내 기업들 주식·채권 발행 늘렸다

지난달 기업들이 자금조달을 위해 주식·채권 발행을 크게 늘린 것으로 집계됐다. 대기업의 유상증자와 기업공개가 잇따랐고 금리인상을 예상해 채권 발행을 통한 선제적 자금 확보에 나선 결과로 보인다.

채권 발행은 11조7777억원으로 1월의 10조5219억원에 비해 11.9%(1조2558억원) 증가했다.

특히 일반회사채 발행은 6조4538억원으로 5조492억원인 1월 대비 27.8% 늘었다. 올 들어 2월까지 기업의 주식·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은 2조2692억원으로 3155억원이 1월에 비해 619.2%(1조9537억원) 증가했다. 이는 하나금융지주

/연합뉴스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휴나핫 온열경영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 한번에...OK!

목욕탕 문화가 바뀌었다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반신욕법

휘나핫 반신욕기는 옷을 입은채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반신욕, 사우나를 동시에 즐길 수 있고 편히 앉아서 책이나 신문 TV등을 볼 수도 있어 획기적인 반신욕기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한의원에서 보면 두한족열의 원리로 몸속 노폐물이 퍼지고 함께 배출되며 때문에 몸속 체온이 상승되며 신체의 상태가 좋아진다.

체온이 1도 상승되면 각자체질에 따라 면역력이



8~10 강해지는 휴나핫 온열경영은 3~4년 전 하루 200~250명 무료 체험을 통하여 많은 체험사례가 있으나 표현할 수 없습니다.

휘나핫은 30여종 광물질 (특허획득제 10-096707호, 발명의 명칭: 세라믹전기발열체 및 그제조방법) 특수제작한 스팀블레스드크 B.C.P 내장하여 450도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원자외선 음이온. 온열이며 일반면상 발열체 외는 비교가 않되는 획기적인 기능을 갖는 휴나핫 반신욕기는 특별한 인기로 한가정에 반드시 한 대씩 보급될 것입니다. (2020년까지)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계좌번호: 국민 404601-01-046107 예금주: (주)휘립건강
판매원: 제조원: (주)휘립건강 * 대리점, 취급점, 영업사원모집

▲2011년 지식서비스 최우수기업 선정 사진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숙변,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분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 당뇨, 신장질환,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부인병, 비만치료!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계르마늄과 납성 성기능에 중대한 작용을 하는 아연, 기운을 북돋는 유기동이 들어있다. 삼백초를 주제로 섭취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관리법
부임출판사 | 김상복 | 저작권 | 5,000원

문의 : 070-7804-5358

계좌 : 농협 351-0260-3196-83 예금주 : 김상복

모리다 요시오 박사와 의사 이토 오사무의 치료 사례
- 25,000명을 임상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반강경 상태는 1개월만에 완치, / 정력이 되살아 난다 / 불임이 치유된다 / 기미가 사라진다 / 숙취가 없어진다 / 위궤양이 치유된다 / 무좀이 없어진다 / 치질이 치료된다 / 탈모가 치료된다 / 류마티즘 관절염이 치료된다...

100% 국내산 참옻나무 진액

참옻 골드